

청소년 상담에서의 심리검사 활용실태: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실을 중심으로

김 영 빈[†] 김 계 현
서울대학교

상담에 사용되는 심리검사의 종류와 사용빈도, 목적, 유용성과 문제점, 교육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전국 16개 청소년종합상담실을 내방하여 자료조사와 면담을 하였다. 연구결과, 모든 기관에서 평균 8~9종류의 검사를 사용하였으며 MBTI, 적성진단검사, 적성탐색검사, MMPI, 직업흥미검사, K-WAIS, 학습기술검사, 학습방법진단검사의 순서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특히 개인상담에서는 MBTI, 문장완성검사, MMPI, 진로·적성검사, 그림검사, 지능검사, 학습검사의 순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검사는 내담자이해 및 의사결정, 상담관계형성을 위해 활용되었다. 상담자들은 실시·해석이 간편하고 내담자에게 덜 위협적이며 검사자의 전문성이 덜 요구되는 검사를 선호하였고, 기존검사의 재표준화와 신뢰도·타당도의 향상, 내담자 특성을 고려한 형식 및 해석프로파일의 개발을 요구하였다. 상담자들은 MBTI, MMPI, 지능검사, 그림검사의 순으로 많이 교육받았으며, 검사교육시간과 사용정도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었다. 상담자들은 검사교육의 문제점으로 상담에의 적용방법 부재와 교육과정의 비체계성을 지적하였고, 많이 사용되는 검사에 대한 교육, 상담에의 검사활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상담자들의 검사실시목적 및 활용은 상담초기의 관계형성 및 내담자이해에 국한되었고, 검사실시의 전문성확보 및 실시·해석과정의 고려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주요어 : 심리검사, 심리평가, 검사, 청소년상담, 상담자교육

김영빈은 서울대학교 입학관리본부에, 김계현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에 근무하고 있음.
본 연구는 2000년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 교신저자 : 김 영 빈, (150-050)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입학관리본부 전문위원실,
전화 : 02) 880-6974 E-mail : kybean@hanmail.net

상담관계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행동은 목표 지향적인 행동이며, 끊임없는 내담자 이해와 의사결정의 과정이다(이장호, 1997). 이를 위하여 상담자는 내담자 및 상담문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의 방법으로는 표준화 검사를 이용하는 방법, 면담법, 관찰법, 비형식적 검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Sattler, 1990). 이 중에서 특히 검사는 객관적이며 책무성있는 의사결정을 요하는 상황에서 주로 활용되는 평가방법이다. 그리고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해석하는 과정 자체로 상담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Goodyear, 1990). 이와 같이 검사는 상담과정에서 내담자를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하며, 상담효과를 증진시키는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연구자는 상담현장에서의 심리검사 활용실태를 조사하고 심리검사에 대한 상담자들의 인식과 교육정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검사개발자들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검사영역 및 검사의 요건을 파악하여, 보다 유용하고 많이 활용되는 검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담자 입장에서는 현재 나와있는 검사 중 상담의 목적에 맞게 적절한 검사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상담자 교육 측면에서는 현장에서 요구되는 검사종류 및 상담자들이 요구하는 교육내용을 이해하여 이에 적합한 상담자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평가와 심리검사의 정의

평가는 '관심사항과 문제를 구체화하고 확인하며, 대상에 대한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으는 역동적 과정'이다(Salvia & Ysseldyke, 1995). 상담에서 평가를 하는 목적은, 내담자에 대한 합당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관련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표준화 검사, 면담, 관찰, 비형식적 검사 등이 사용될 수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동일, 1995).

그리고 심리검사는 '인간의 심리적 특성 중 어느 하나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 때 '인간의 심리적 특성'이란 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및 심동적 영역을 포함한다(황정규 등, 1997). 특히 표준화된 심리검사는 신뢰도·타당도·규준 등 검사자체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내적 준거를 가지고 있고 개인의 내면적 특성과 환경의 특성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객관적으로 수량화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이 선호되고 인정받는 평가도구이다.

상담에서 심리검사 사용에 관한 기존 연구들

1980년대 미국의 조사에 따르면 상담심리학자의 상당수가 검사 및 평가활동을 자신의 상담활동의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으며(Fitzgerald & Osipow, 1986; Watkins, Lopez, Campbell & Himmell, 1986), 대학원을 졸업한 상담자들의 68%가 객관적 검사 사용을 그들의 주요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Birk & Brooks, 1986). Watkins와 Campbell(1988)이 미국심리학회(APA) 상담분과 회원 1000명을 대상으로 심리검사의 사용과 의견을 조사한 결과, 상담자들은 객관적 검사를 투사적 검사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검사에 대한 학습경험, 상담기관이나 의뢰자의 요구 등이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의 사용빈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담기관에서 많이 사용되는 심리검사는 다면적 인성검사(MMPI), 웨슬러 지능검사(WAIS-R), 문장완성검사(SCT)의 순서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담자의 소속기관에 따라 많이 사

용되는 검사의 종류에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직업흥미검사와 객관적 성격검사가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담에서 심리검사 활용실태를 보여주는 국내 연구 중 구본용(1989)에 따르면, 대학상담센터와 중고등학교에서 심리검사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조사기관의 80%이상 사용), 검사실시자가 검사에 익숙하지 못하고 검사자체가 오래 되거나 불완전해서 해석 및 상담 등의 후속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김동일(1995)의 연구결과 역시 구본용의 연구와 유사하다. 이와 함께 김동일은 검사개발자, 판매자, 실시 및 해석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전문가들의 의견과 검사사용과정을 보다 심도있게 제시하였다.

상담에서 심리검사의 활용목적

Hood와 Johnson(1997)은 상담에서 심리평가를 하는 목적을 문제인식, 문제규정, 대안생성, 의사결정, 확인의 5단계로 설명하였다. 이중 '문제인식'의 단계에서는 심리평가를 통해 내담자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수용하게 하며, 잠재적 문제에 예민해지고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발전적 방향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인 '문제규정'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문제를 세부적으로 정의하고 문제의 특성을 명료화하는 것으로, 상담자와 내담자가 문제에 동의함으로써 상담자, 내담자, 제3자의 의사소통을 돕는다. 세 번째 단계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생성'이다. 즉 흥미검사 결과를 토대로 진로변경의 가능성을 모색하거나, 문장완성검사를 통해 과거 비슷한 상황을 살펴보는 등 검사를 통해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준다. 넷째로 문제해결을 결정한 후 다양한 대안의 결과를 예측하면서 '의사결정'을 내

리게 되는데, 이때 심리평가를 통해 각 대안의 성공가능성과 매력정도, 장단점을 살펴볼 수 있다. 끝으로 '확인' 단계에서 심리평가는 상담자에게 상담효과를 확인시켜주고, 의뢰자 및 제3자에게 신뢰를 주며, 상담과정을 개선·변화시키는 근거자료가 된다. 또한 내담자 입장에서는 해결된 문제를 확인할 수 있고, 내담자가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인식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게 해준다. 이와 같이 심리평가는 상담의 초기나 특정 단계에 국한되지 않고, 전 단계에 걸쳐 다양한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박성수(1989)는 학교상담 및 생활지도에서 심리검사를 활용하는 목적에 대하여 분류 및 선별, 상담에 대한 동기유발, 내담자의 진단적 평가, 상담의 결과평가, 학생이해의 자료수집, 연구자료 수집의 6가지로 정리하여, 상담과정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교교육에의 활용 및 연구와 관계된 다양한 목적을 제시하였다.

방 법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전국 16개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실 전체를 대상으로 1999년 자료를 조사하였고, 둘째 각 상담실에서 근무하는 42명의 상담자를 대상으로 '최근 한달'간의 자료를 조사하였다.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실은 문화관광부 소속의 청소년 상담기관이며 서울특별시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6개 광역시 및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개 도에 개설되어 있다. 청소년종합상담실은 여타 청소년상담실 및 시설기관에 비하여 체계와 규모를

갖추고 있고 기관별 6명 이상의 전문상담원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이므로, 본 연구의 조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상담자는 기관별 3명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사정상 2개 기관에서 각 2명, 다른 2개 기관에서 각 1명씩을 대상으로 하여 총 42명의 상담자를 면담하였다. 그중 여성이 36명(86%), 남성이 6명(14%)이었고, 직위로는 상담실장 1명, 상담부장 6명, 전임상담원 10명, 상담원 25명이었다. 상담경력은 1년에서 15년까지 다양했으며, 대학원에서의 전공영역으로는 교육학이 29명(69%)으로 가장 많았고, 심리학 9명(21%), 사회복지학 4명(10%)이었다. 상담자의 검사사용량을 조사할 경우에는 개인기록 및 기억에 의존해야하는 관계로, 면담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한달'간의 사용량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료수집절차

총 16개 기관 중 14곳은 연구자가 직접 상담실을 방문하여, 보유중인 검사를 열람하고 검사사용대장을 조사하였으며, 기관의 검사담당자 또는 상담실장을 통해 검사관련 기관 정책을 조사하였다. 또한 방문시 기관별 상담자 3명과 면담을 하였다. 나머지 2개 기관은 전화로 조사와 면담을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0년 4월 20일~5월 30일이었다.

연구자가 제작하여 사용한 조사도구는 두 종류인데, 첫째는 '상담기관 기록지'로 상담기관에서 보유중인 검사목록과 검사별 사용빈도, 기관의 검사관련 정책을 조사하는 기록지이고, 둘째는 '상담자 면담질문지'로 응답자의 인적사항, 개인상담에서 사용중인 검사목록 및 사용빈도, 검사사용목적과 검사별 장단점, 검사교육내용 및 시간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 과

본 연구결과를, 상담기관의 검사보유현황 및 사용실태, 그중 개인상담에서의 검사활용실태, 상담자들의 검사교육현황 및 상담자들이 인식하는 검사별 장단점의 네 가지로 제시하겠다.

기관의 심리검사 사용실태

보유현황 및 기관정책

조사결과 16개 전 기관에서 심리검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기관별로 7~30종류의 검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영역별로는 진로·적성 검사를 가장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었고, 전체 기관중 50%이상의 기관에서 보유중인 검사로는 성격유형검사와 아동용 성격유형검사(MBTI와 MMTC), 표준화성격진단검사, 적성탐색검사·진로탐색검사, 진로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 웨슬러 지능검사(K-WAIS와 KEDI-WISC), 학습흥미검사, 학습습관검사, 다면적 인성검사(MMPI), 간이정신진단(SCL-90R), 문장완성검사(SCT) 등이 있었다. 표 1에는, 16개 기관에서 보유중인 검사목록 및 보유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모든 기관에서 상담에의 검사활용 결정 및 실시·해석은 상담자에 의해 진행되었으나, 진로 및 학습관련 검사의 경우 컴퓨터채점을 하는 기관이 있었고, MBTI와 MMPI 등 객관적 검사의 채점을 자원봉사자나 인턴에게 맡기는 기관도 일부 있었다. 대부분 심리검사는 유료로 실시되고 있으며, 현재 기관에서 상담자들을 위한 정기적인 검사교육 및 검사수퍼비전을 실시하는 기관은 3곳이었다.

사용빈도

표 1은 1999년 한해동안 16개 기관에서 각 검사를 사용한 빈도를 보여준다. 검사영역별로는 성격검사, 진로 및 적성검사, 임상 및 적용검사, 지능

표 1. 16개 상담기관에서 보유중인 심리검사목록 및 사용빈도(1999년 기준)

검사영역	검사명	출판사	제작(개정)년도	보유현황	사용빈도
성격	MBTI	한국심리검사연구소	1990(1994)	16/16	8829
	MMTIC	한국심리검사연구소	1993		
	표준화성격진단검사	중앙적성출판사	1969		
	KPI 성격검사	한국행동과학연구소	1992(1996)		
	인성검사	코리안테스팅센터	1967(1971)		
	특수인성검사	한국가이던스	1995(2001)		
	BGT 성격진단법	중앙적성출판사	1974		
	육구진단검사	코리안테스팅센터	1965		
진로 및 적성	적성탐색검사, 진로탐색검사	한국가이던스	1995(2001)	11/16	998
	진로발달검사	한국가이던스	1997(2001)	3/16	11
	적성종합검사	코리안테스팅센터	1961	1/16	0
	일반직업적성검사	노동부	1994	4/16	52
	적성진단검사	중앙적성출판사	1969(1974)	8/16	369
	진로적성검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1975	1/16	78
	Strong 진로탐색검사	한국심리검사연구소	2000	2/16	0
	직업흥미검사	노동부	1994	11/16	662
	흥미검사	한국행동과학연구소	1992	5/16	10
	GATB	중앙적성출판사	1961(1967)	6/16	0
	KAT-A 적성검사	한국행동과학연구소	1985	1/16	0
	종합적성진로진단검사	대교교육과학연구소	1996	1/16	11
	지능	종합능력검사	한국행동과학연구소	1986(1995)	4/16
일반지능검사		코리안테스팅센터	1965(1971)	5/16	6
지능진단검사		중앙적성출판사	(1996)	3/16	0
GFIT 지능검사		중앙적성출판사	(1996)	3/16	0
KIT-M		한국가이던스	1993	1/16	0
KISC 유아지능검사		행동과학연구소	1993	2/16	0
K-WAIS		한국가이던스	1963(1992)	13/16	165
KEDI-WISC		한국교육개발원	1987(1991)		
K-ABC		학지사	1997	5/16	31
고대비네지능검사		고대행동과학연구소	1970(1971)	1/16	0

표 1. 계속

검사영역	검사명	출판사	제작(개정)년도	보유현황	사용빈도
학습관련	학습기술검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1994(1998)	5/16	65
	학습흥미검사	중앙적성출판사	(1996)	11/16	5
	학습방법진단검사	한국가이던스	1997(2001)	3/16	58
	학습습관검사	코리아테스팅센터		8/16	57
	종합학습능력검사	대교교육과학연구소	1995	1/16	11
기타 정의적 특성	자아개념검사	코리아테스팅센터	1968	13/16	13
	자아실현검사	중앙적성출판사		5/16	5
	개인, 대인가치관검사(SPV)	코리아테스팅센터	1986	2/16	2
	직업가치관검사	중앙교육진흥연구소	1994(1998)	1/16	1
기타 능력 특성	간편창의성검사	서울대 교육연구소	1969	5/16	5
	정서지능진단검사	대교교육과학연구소		1/16	1
	최신인성정서진단검사	대교교육과학연구소		1/16	1
임상 및 적용	다면적 인성검사(MMPI)	한국가이던스	1988(1994)	16/16	610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	중앙적성출판사	1984	8/16	5
	콤플렉스연상검사	(미간)		1/16	0
	불안검사	코리아테스팅센터		4/16	0
	이화방어기제검사	하나의학사		1/16	2
	VMI	도서출판 특수교육		1/16	0
	표준적용검사	코리아테스팅센터		3/16	0
	행동평가척도(K-CBCL)	중앙적성출판사	1998	3/16	27
	적용행동진단검사(K-ABS)	중앙적성출판사		2/16	0
종합적용능력검사	대교교육과학연구소	1996	1/16	15	
가정관련	가정환경진단검사	코리아테스팅센터	1969	5/16	0
	부모-자녀관계진단검사	코리아테스팅센터		5/16	62
	부모양육태도검사	(불명)		1/16	0
	초기아동기억검사	(불명)		1/16	2
투사검사	로샤검사(Roaschach)	중앙적성출판사	1973	4/16	2
	TAT	고대행동과학연구소	1973	5/16	12
	아동용회화통각검사	이대인간발달연구소	1993	1/16	0
	문장완성검사(SCT)	(미간)		10/16	137
기타검사	집단잡입도형검사	코리아테스팅센터		1/16	0
	의사결정유형검사	(불명)		1/16	0
	사회성숙도검사	중앙적성출판사	1977(1995)	3/16	10

검사, 학습검사의 순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개별 검사로는 ① MBTI와 MMTIC, ② 적성진단검사, ③ 적성탐색검사와 진로탐색검사, ④ MMPI, ⑤ 직업 흥미검사, ⑥ 웨슬러 지능검사, ⑦ 학습기술검사의 순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개인상담에서의 심리검사 활용실태

기관조사에서 얻어진 심리검사 종류와 사용빈도는, 심리검사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와 개인상담, 집단상담, 학교나 종교단체의 의뢰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중 상담과정에 도움을 얻기 위해 검사를 활용하는 경우만을 구별하여 알아보려 하였다. 그러나 기관의 검사사용대장에는 검사사용목적과 용도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한달간의 검사사용내역 및 의견을 들음으로써, 개인상담에서의 심리검사

활용실태를 조사하였다.

사용현황

상담자의 76%가 상담 3사례중 한 사례 이상에 검사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중 26%는 매 사례마다 검사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상담에 검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17%로 나타났다. 상담에 검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상담자들이 한 사례당 1~2개의 검사종류를 사용하였다(94%).

사용하는 검사종류 및 빈도

개인상담에서 사용되는 검사는 종류와 빈도가 많지 않아 MBTI와 MMPI, 문장완성검사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검사영역별로 묶어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상담자들이 개인상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사는 ① MBTI와 MMTIC, ② 문장완성검사,

표 2. 상담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목적 (N=42)

구분	검사사용 목적	빈도	백분율(%)
내담자와의 관계형성	상담유도 및 라포형성	15	35.7
	내담자 자신의 이해돕기	3	7.1
내담자 이해 및 진단	내담자의 현상태진단	22	52.4
	내담자의 성격파악	10	23.8
	호소문제파악	7	16.7
	환경이해	2	4.8
상담초기의 의사결정	상담 및 의뢰여부결정	4	9.5
	상담목표 결정	10	23.8
	상담방법 결정	2	4.8
	예후파악	1	2.4
상담과정의 의사결정	상담과정 평가	5	12.9
	종결여부 결정	2	4.8
기타	자료보관	3	7.1

주. 자유응답방식, 중복응답 허용

③ MMPI, ④ 진로 및 적성검사, ⑤ 그림검사, ⑥ 지능검사, ⑦ 학습검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상담기관에서 많이 사용되는 '진로 및 적성검사'는 심리검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집단상담에 많이 사용되고, 개인상담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심리검사의 활용목적 및 유용성 인식

상담자들이 검사를 사용하는 목적은 다양한데(표 2), '내담자의 현상태 진단'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52%). 이외에 내담자의 성격 및 호소문제의 파악, 내담자의 환경이해 등 다양한 '내담자 이해 및 진단'을 위해 검사를 활용하였고,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주로 성격검사와 임상검사들이 사용되었다. 다음으로는 '내담자를 상담으로 유도하기 위해' 그리고 '상담에서의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서 상담자들은 내담자에게 부담스럽지 않고 이해하기 쉬운 검사를 필요로 하였다. 응답한 모든 상담자들이 검사를 상담초기에 사용하고 있었고, 따라서 상담초기의 내담자 이해 및 의사결정, 상담관계형성에 주로 검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용하고있는 심리검사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88%의 상담자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검사의 본래 목적인 내담자진단과 의사결정 뿐만 아니라 상담관계를 형성하는데에 검사가 유용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심리검사의 문제점

심리검사의 문제점으로는 검사의 실시와 해석이 어렵다는 점, 검사가 오래되고 낙후되었다는 점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특히 MMPI와 KEDI-WISC, 투사적 검사의 경우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실시·해석의 어려움과 시간부담 때문에 사용의 한계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문장완성검사는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정형화된 해석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 자신없다는 응답이 있었다. 또한 적성검사 및 능력검사, 학습관련검사, 가정환경검사 등에 대한 낙후성 지적이 많았고, 새로운 검사의 개발 및 기존 검사의 재표준화 요구가 많이 제기되었다.

상담자들이 검사에서 개발·개선되기를 원하는 부분으로는, 검사 대상연령의 폭을 좁혀서 아동과 청소년 특정 연령에 적합한 검사(4명), 아동과 청소년에게 쉽게 해석·전달할 수 있는 프로파일 제시(7명), 가족 및 교우를 포함하여 대인관계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6명) 등이 개발되기를 희망하였다. 그밖에 적은 문항으로 임상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검사, 문제행동을 구별해내는 스크린용 검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상담자의 검사교육

검사의 교육경로 및 교육시간

비교적 체계적인 교육경로인 대학원, 워킹, 상담기관의 현장교육을 통해 과반수의 상담자들이 교육을 받은 검사 종류는 MBTI, MMPI 뿐이었다. 특히 상담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문장완성검사와 진로·적성검사의 경우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검사를 실시하는 상담자들이 교육을 받은 상담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심리검사별 교육시간을 조사한 결과, 교육경로와 마찬가지로 MBTI와 MMPI, 지능검사에 대해 교육받은 상담자가 가장 많으며 평균 교육시간 역시 가장 길었다(각 30시간 이상). 반면 문장완성검사와 진로·적성검사는 20%의 상담자만이 교육을 받았고, 청소년 상담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지는 학습관련 검사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상담자가 전혀 없었다. 청소년 상담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활용가능성이 높은 검사들에 대한 교육기회가 현재

히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상담자들은 MBTI와 MMTIC(88%), MMPI(71%), 지능검사(45%), 그림검사(33%)의 순으로 가장 많이 교육받았으며, 현재 검사에 대한 수퍼비전을 받고 있는 상담자는 17%로 나타났다.

검사교육과 활용정도의 관계

상담자들이 검사에 대하여 장시간 교육받을수록, 다양한 검사를 더 많이 활용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담자들의 검사교육시간과, 상담중 검사 사용 비율(상담중 검사사용 사례수/총 상담사례수), 상담중 사용하는 검사 종류수 간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 상담자들의 검사 교육시간은, 상담중 검사를 사용하는 비율 및 활용하는 검사의 종류수와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다($r=0.42$, $r=0.55$, $p<0.01$). 반면 교육받은 검사 종류수와 사용하는 검사 종류수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짧은 시간에 다양한 검사를 소개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교육보다는, 검사에 대하여 장시간 교육받은 상담자일수록 다양한 검사를 자주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검사교육의 문제점

상담자들에게 검사교육의 문제점을 질문한 결과, 교육내용이 검사의 실시·해석에 국한되고 상담에의 적용부분을 다루고있지 않다는 점(38%)과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없다는 점(17%)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또한 2개 이상의 검사를 통합하여 해석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12%). 따라서 상담자들은 검사를 실시하고 해석하여 상담에 적용하고, 내담자 및 의뢰자에게 전달하는 과정들을 상담의 목적과 전개에 맞게 진행하는 전반에 대하여 교육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자들이 인식하는 검사별 장단점

상담자들과의 면담내용을 토대로 사용중인 검사별 실시목적 및 검사활용의 장단점 등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개인상담에서 많이 활용되는 검사 순서로 정리하였다.

성격유형검사(MBTI)

MBTI는 가장 많은 상담자들이 교육받은 심리검사이며, 동시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심리검사이다. 이 검사는 내담자를 상담으로 유도하기 위해, 상담의 소재를 찾기 위해, 내담자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고 싶을 때, 그리고 내담자가 자기성격·대인관계·학업 및 진로문제를 호소할 때 구체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특히 내담자의 상담동기를 촉진시키고 상담초기에 소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상담에 활용되고 있었다. 많은 상담자들은 MBTI가 단시간에 실시 및 채점이 가능하고, 내담자에게 위협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상담초기의 관계형성이나 단회상담에 유용하다고 지적하였다. MBTI는 특히 아동용검사나 진로검사, 학업관련검사의 대체방법으로 종종 사용되고 있었다.

문장완성검사(SCT)

문장완성검사는 투사적 검사 가운데 실시 및 해석시간이 비교적 짧고, 한눈에 의미있는 문항 및 내담자의 취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상담자들은 내담자가 자기노출을 꺼리거나 의사표현을 못하는 경우, 상담문제 및 초기의 소재를 도출하기 위하여 이 검사를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내담자의 사고방식 및 반응경향, 성격 파악을 위해, 과거사와 가족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용빈도와는 달리 이 검사의 교육을 받은 상담자는 비교적 소수로

나타났다.

다면적 인성검사(MMPI)

MMPI는 문항수가 많고 실시 및 채점에 장시간이 소요되지만, 학교·보호관찰소 등의 의뢰로 채무성있는 의사결정을 해야할 경우 및 약물치료, 병원의뢰여부, 예후파악 등의 의사결정, 내담자 진단 등에 활용되고 있었다. 또는 중3 이상 연령을 대상으로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MMPI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는 다양한 성격검사 가운데 상담자가 특히 이 검사에 익숙하거나 임상수련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이는 상담자가 검사를 선택할 때 본인에게 익숙한 검사를 선호하게 된다는 다른 응답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MMPI가 내담자의 진단과 의사결정에 유용하기는 하나, 문항의 위협성 및 부담감 때문에 심적 부담을 느낀다는 상담자들도 많았다.

진로 및 적성검사

진로 및 적성검사는 진로결정 및 변경을 위한 내담자 이해에 주로 활용되었다. 진로상담의 경우 내담자가 구체적인 호소문제를 갖고 상담에 임하며 상담 첫회에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진로 및 적성검사는 출판사에서 컴퓨터채점 및 해석프로파일이 제공되어, 프로파일을 읽는 요령과 그밖의 정보를 내담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담에서 진로 및 적성검사를 사용함으로써 내담자의 흥미와 욕구를 이해하고 진로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으며, 내담자의 학습동기를 촉진하고 상담으로 유도함으로써 진로준비 및 진로탐색에 대한 본격적 동기를 부여할 수 있었다. 이 검사에 대한 장점으로는, 학교에서의 진로정보가 많지 않아 이 검사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이 높고 상담으로 유도하는데 유용하다는 입장이며, 반면 단점으

로는 검사의 낮은 변별도 및 예언력, 개인의 상대적 강약점 파악이 미흡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그림검사

그림검사는 문장완성검사와 마찬가지로 단시간에 실시가 가능한 투사적 검사이다.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상담에 비참여적인 취학전 아동 또는 초등학생에게 주로 활용되며, 7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검사 요청이 있을 때 적절한 아동용 검사가 없기 때문에 그림검사를 대신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적절한 아동용 검사의 부재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런 때에 상담자들이 MMTIC나 그림검사를 대신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검사결과는 내담자의 가족관계, 학교생활, 부모에 대한 감정 등을 이해하는데 두루 쓰이며, 학부모가 아동을 이해하도록 돕는데 활용되기도 하고, 진단 목적으로도 사용되었다. 물론 이 검사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나 임상수련을 받은 상담자들만이 이 검사를 진단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지능검사

최근 한달간 사용된 지능검사는 모두 K-WAIS나 KEDI-WISC, K-ABC 등 작동성 검사였다. 지능검사는 학업 및 진로문제와 관련하여 내담자나 의뢰자의 요구에 의해 실시되는 경우가 많았고, 임상진단을 위해 활용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내담자의 객관적인 자기이해를 돕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하였다.

학습관련검사

학습문제는 청소년 상담에서 비중있는 영역이지만, 학습관련검사 사용은 저조하였다(5%). 상담자들은 이 검사를 통해 학습방법이 서툴러서 성적이 저조한 내담자에게 자기학습방법을 이해하고 개선하도록 하고, 학습방법의 각 영역 중 취약한

부분부터 상담에서 다루어감으로써 상담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응답하였다. 최근에 학습관련검사를 사용한 상담자 모두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해석프로파일과 책자를 상담에 활용하였다. 이 검사에 대한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컴퓨터를 통한 해석프로파일이 많은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면, 검사교육을 대체하여 유용한 검사활용을 유도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사적 검사

최근 한달간. 문장완성검사와 그림검사를 제외한 투사적 검사를 상담에 활용한 상담자는 전혀 없었다. 기관의 검사사용대장에도 투사적 검사의 사용빈도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아 실제 청소년상담에서 투사적 검사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이 검사의 실시·해석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검사를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문수준이 높기 때문에 흔히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논 의

연구결과, 심리검사는 내담자 진단 등의 평가목적뿐만 아니라, 내담자와의 관계형성 및 동기부여 등 상담과정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상담에 활용되는 심리검사를 개발하거나 검사에 대한 교육을 할 때에는 평가목적과 함께 상담관계형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상담자들은 실시와 해석이 간편하고, 내담자에게 덜 위협적이며 검사자의 전문성이 덜 요구되는 검사를 선호하였다. 따라서 간편하고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검사나 체크리스트가 개발된다면 상담초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검사 중에는 제작이나 개정년도가 오래되

어 사용할 수 없는 검사들이 다수 있었는데, 이러한 검사들의 재표준화와 신뢰도 및 타당도의 향상이 요구되고 있었다. 또한 가족과 교우를 포함한 대인관계 검사, 취학전 아동 등 특정 연령 및 내담자 특성을 고려한 검사형식과 해석프로파일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실시와 해석이 간편하고 덜 위협적이며 덜 전문적인 심리검사에 대한 요구는, 검사 및 진단에 대한 상담자들의 전문성 및 자신감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심리검사는 상담의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조사결과 상담자들의 검사실시목적 및 활용은 상담초기의 관계형성과 내담자 이해에 국한되었고 검사실시 및 해석과정의 고려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빠르고 효과적인 내담자 진단과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검사에 대한 상담자들의 전문성과 자신감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상담자들이 심리검사를 활용하는 비율 및 과정은 상담자의 심리검사 교육시간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상담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심리검사와 대학원에서 교육받는 검사 간에는 일치성이 적었고, 검사결과를 상담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요구되는 검사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상담의 다양한 단계와 목적에 검사를 활용하는 방법과 검사결과를 상담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추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조사결과 현저히 높은 사용빈도를 보인 MBTI 검사를 통해, 상담에 활용되기 위한 검사의 조건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우선 MBTI는 가장 많은 상담자들이 장시간동안 교육받았고 제작기관의 워크샵 등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되는 검사였다. 그리고

상담관계형성, 동기부여 및 내담자자신을 이해하는데에 유용한 검사이며, 교육내용으로 이와 같은 검사결과와 활용방법을 지도하고 있었다. 따라서 상담에서 심리검사가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검사교육이 필요하고, 검사실시와 해석뿐만 아니라 상담에의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로 MBTI는 단시간에 실시 및 해석이 가능하고 내담자에게 위협적이지 않으며 실시자의 전문성을 덜 요구하는 등 상담자들이 선호하는 검사의 특징을 만족시키고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간편하고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검사 및 체크리스트의 개발이 상담에의 검사활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종합상담실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체계적이고 규모있는 전국의 상담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청소년 상담분야, 특히 청소년종합상담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이 결과를 모든 상담분야, 모든 상담 장면에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각 기관별로 3명씩의 상담자를 임의표집하였고, 투사적 검사 사용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다양한 상담분야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심리검사에 대한 내담자들의 지각, 상담교육기관에서의 심리검사 교육내용, 심리검사의 효과성연구, 상담에 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심리검사의 요건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참고 문헌

구본용 (1989). 학교장면에서의 심리검사의 활용. *대학생활연구* 7, 17~46,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김계현 (2000). *상담심리학 연구: 주제론과 방법론*.

서울: 학지사.
김동일 (1995). *청소년행동평가 체제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검사개발, 활용실태 및 발전방향*.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김재환, 최동욱 (1990). 초기상담과 심리검사. *대학생활연구* 8, 127~137,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김형태, 오익수, 김원중, 김동일 (1996). *청소년 학업상담*. 서울: 청소년 대화의 광장.
김혜숙 (1998). 청소년 상담기관의 구조와 운영실태: 전국 청소년 상담기관의 특징과 운영실태, 청소년 유관 기관들의 특징 및 상호관련 구조 상담사례 연구법 및 청소년 상담의 실제, 87~102,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
박성수 (1989). 생활지도와 상담에서 검사의 활용. *대학생활연구* 7, 1~16,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이장호 (1997). *상담면담의 기초 (제2판)*.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정원식, 박성수, 김창대 (1999). *카운슬링의 원리*. 서울: 교육과학사.
한국심리학회 편 (1998). *심리검사: 제작 및 사용 지침서*.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황정규 (1989). 학교장면에서 사용되는 현행 심리검사의 문제점. *대학생활연구* 7, 47~60,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황정규, 이성진, 원호택, 임인재, 윤정일, 박성익, 문용린, 김종택 (1997).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편). *한국교육 심리검사 총람: 교육·심리검사의 체계적 집대성*. 서울: 프레스빌.
Brik, J. M., & Brooks, L. (1986). Required skills and training needs of recent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 320-325.

- Fitzgerald, L. F., & Osipow, S. H. (1986). An occupational analysis of counseling psychology: How special is the specialty? *American Psychologist*, 41, 535~544.
- Goodyear, R. K. (1990). Research on the effects of test interpretation: A review.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8, 240~257.
- Hood, A. B., & Johnson, R. W. (1997). *Assessment in Counseling: A guide to the use of psychological assessment procedures (2nd ed.)*. The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 Kaplan, R. M., & Saccuzzo, D. P. (1993). *Psychological testing: Principles, applications, and issues (3rd ed.)*. Wadsworth, CA: Brooks/Cole.
- May, T. M., & Scott, K. J. (1991). Assessment in counseling psychology: Do we practice what we tea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9, 396~413.
- Salvia, J., & Ysseldyke, J. (1995). *Assessment (6th ed.)*. Boston: Houghton Mifflin.
- Sattler, J. (1990). *Assessment of children (3rd ed.)*. San Diego: Jerome M. Sattler.
- Super, D. E. (1955). Transition: From vocational guidance to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 3~9.
- Watkins, C. E., Jr. (1983). Counseling psychology versus clinical psychology: Further explorations on a theme or once more around the "identity" maypole with gusto.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1, 76~92.
- Watkins, C. E., Jr., Lopez, F. G., Campbell, V., & Himmell, C. D. (1986). Contemporary counseling psychology: Results of a national surve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 301~309.
- Watkins, C. E., Jr., & Campbell, V. L. (1988). Counseling psychologist's uses of and opinions about psychological tests: A contemporary perspectiv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6, 476~486.
- Watkins, C. E., Jr., & Campbell, V. L. (1990). Testing and assessment in counseling psychology: Contemporary developments and issue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8, 189~197.
- Whiteley, J. M. (1984). Counseling psychology: A historical perspectiv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2, 2-109.

원고접수일: 2001. 9. 29

수정원고접수일: 2001. 11. 16

게재결정일: 2001. 12. 4

Use of Psychological Tests in Youth Counseling

Young-Bean Kim Kay-Hyo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Psychological tests are important parts of counseling proc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ich tests are used by the youth counselors and how often that are used. For this, I visited and investigated 16 local youth counseling centers and interviewed with 42 counselors. Generally, the youth counseling centers used, by average, 8-9 kinds of the test. And MBTI, MMTIC, aptitude test, MMPI, career-interest test, K-WAIS or KEDI-WISC, and learning-skill test are most often used. In individual counseling, counselors used frequently MBTI or MMTIC, sentence completion test, MMPI, career-aptitude test, drawing test, intelligence test and learning-skill test. Tests play a role not only as a tool to understand clients but also as a bridge to build relationships between a counselor and a client. So, we need to consider the relationship building between the counselor and the client as well as the effectiveness when we develop a new test. 88% of counselors acknowledged the usefulness of the psychological tests, from which they could get objective and effective data for diagnoses. They pointed out, however, the weaknesses of the tests such as difficulties in executing or analyzing, and obsolescence. Counselors prefer the easy and less offensive tests. Counselors were educated for MBTI, intelligence test, and drawing test. And only 17% of them took supervision for the tests. The length they took for learning the tests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frequency and diversity of the tests used. Counselors point out the absence of the education for applying the tests for counseling, and the nonsystematic curriculum. And they need the education system for using the test in counseling and for making a link between the two. The purpose of the tests is limited to build a relationships or to understand clients. Meanwhile, the expertise and considerations in executing and analyzing the tests are in some cases neglected, which are needed.

Key Words : psychological test, psychological assessment, test, youth counseling, counselors' education.